

# 이해찬, 주말 호남선 타고 '전대 흥행몰이'

### 8일부터 후보 합동연설회...이낙연 대세론 속 이슈 부재 김부겸 아내 "친오빠 이영훈 탓 남편 곤혹" SNS 글 눈길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 비대면 형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진행되고,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 속에서 당 대표 경선이 큰 요동없이 흘러가고, 최고위원 후보군들도 이슈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TV토론회에서도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해찬 대표가 지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오

는 8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흥행 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이 대표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전대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에서는 코로나19로 전대가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눈길 끌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 이벤트 직후에 당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자체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로 결정한 탓도 있지만 당권주자와 최고위원 후보군이 현안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당시 재난·재해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대응 능력을 차별화 지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 지원을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 드린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의 아내 이유미 씨는 김 후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이 글에서 "큰 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

을 부정할 책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김 후보가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그런데 이제와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려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후보는 광주KBS 라디오에 출연, 전남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을 띄우며 호남 민심에 공을 들였다. 그는 "헌법 전문에 광주 5·18을 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광주 쪽으로 이전해 상징성도 살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분산의 의미도 보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원 국정원장 "개혁에 내부 반발"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회동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만나 "국정원 개혁방안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박 원장은) 국정원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원장은 직원들에게 '국정원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직원들을 향해 "정치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직원들이 외풍을 막아달라"며 "그중에서 8월 중순 이후 날을 잡자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는 생각은 단념하라"고 했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면담에서는 국정원 개혁방안의 취지, 거시적인 개혁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30분간 박 원장의 요청 아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박 원장은 면담 내용,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장 임기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합구했다. 그는 전남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박 원장은 이날 중순에는 별도 일정을 잡아 미래통합당 및 국민의당도 예방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예방을 제안한 상태"라며 "그중에서 8월 중순 이후 날을 잡자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 논란

### 민주 유기홍 "본인의 자화상"...신동근 "반정부 투쟁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사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논평이나 대응을 안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웃기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

한 비판이 분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자 윤석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어 낸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입법 본회의 통과

### 법인·다주택자 세금 인상...통합당 표결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과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인 사정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

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회는 이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행정수도 이전 특위 설치하자" 우원식 TF단장, 야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4일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추진단 서울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최근 뉴욕타임스 홍콩 지사의 서울 이전 계획에 대해 "최첨단 문화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서울을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기회"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야당에 다시 제안했다.

그는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그 어떤 것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치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서삼석, 국가균형발전·지방정부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양·무안·신안)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 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이래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여건이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